

현대건설이 짓는 싱가포르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Waterway Point and Watertown in Singapore



News

싱가포르의 신도시 풍골(Punggol)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지난해 1월 오픈한 'Waterway Point' 쇼핑몰은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인다. 지하철(MRT)과 경전철(LRT) 역사가 바로 연결돼 입지가 좋고, 공원과 바다로 이어지는 수로를 끼고 있어 가족과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 현대건설은 지난해 쇼핑몰(지하 4~지상 2층) 공사를 먼저 마무리 하고, 현재 콘도(지하 5층 주차장, 지상 2~14층, 11개 동, 992세대)와 기타 부대 시설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관련기사 6, 7면

Waterway Point and Watertown is emerging as a major attraction in Punggol New Town of Singapore. Waterway Point, a shopping mall which opened in January last year, is packed with people on weekends. It is a perfect place to take a rest with family and friends since it is linked to the Punggol MRT/LRT station and located next to the waterway leading to a public park and the sea. Hyundai E&C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shopping mall last year and is accelerating its efforts to build a residential component and other facilities. ▶ Continued on page 6, 7

현대건설, '싱가포르 BCA 건설대상' 트리플크라운 달성

QEA·BEL·CEA 3개 부문 수상 - 국내 건설사 중 최다 수상 기록 보유

현대건설이 세계 건설사들의 각축장으로 부상한 싱가포르에서 우수한 시공 능력을 입증했다.

현대건설은 최근 싱가포르 건설부(BCA: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가 주관한 '싱가포르 BCA 건설대상 2017'에서 품질 우수 건설사 부문(QEA: Quality Excellence Award) 대상을 비롯해 건설 리더십 부문(BEL: Built Environment Leadership Award) 최우수상, 우수 준공 현장 부문(CEA: Construction Excellence Award) 최우수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대상(Platinum)을 차지한 품질 우수 건설사 부문(QEA)은 최근 5년간 준공한 건축물의 품질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것으로, 현대건설은 2016년에 이어 올해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건설은 2014년, 2015년에도 최우수상(Gold Plus)을 수상했다.

현대건설의 신기록은 건설 리더십 부문(BEL)에서도 이어졌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BEL 부문에서 최우수상(Gold Class)을 받으며 우수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BEL 부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발주처, 설계사, 컨설턴트, 건설사를 대상으로 안전·품질·사업지속성 등을 평가해 싱가포르 건설 시장을 선도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주공도 시공사(JTC), 한국 환경부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실증 완료에 성공한 '오염 준설토 정화 신기술'이 수상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이다.

또한 시공품질·공기순수·안전·사고율·생산성·친환경성 등을 평가해 시상하는 우수 준공 현장 부문(CEA)에서



13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열린 '싱가포르 BCA 건설대상' 시상식.

현대건설의 '싱가포르 트윈 피크스 콘도 미니엄(Twin Peaks condominium)' 현장이 상업·복합개발 부문 최우수상(Merit)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한편 '싱가포르 BCA 건설대상'은 현지에서 준공됐거나 시공 중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시공·친환경·설계·안전·품질 등 총 10개 분야별로 수여하는 상이다. 현대건설은 1997년 '원텍시티'를 시작으로 총 24회 수상(Green Mark 인증 포함 44회)하며 국내 건설사 중 최다 수상의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Hyundai E&C wins three awards at the BCA Awards of Singapore

Hyundai E&C has won three prizes including the Quality Excellence Award (QEA), the Built Environment Leadership Award (BEL) and the Construction Excellence Award (CEA) in the BCA Awards 2017 given by the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BCA) of Singapore.

Korea's primary builder has obtained the Quality Excellence Award Platinum, becoming the only winner among its domestic competitors. The QEA is given to companies which have maintained quality excellence for the past five years. Hyundai E&C won the award for two consecutive years, and previously, it had been awarded the Quality Excellence Award Gold Plus in 2014 and 2015.

The company has won the Built Environment Leadership Award Gold Class

in recognition of its superior competitiveness, making it the first company to receive the honor in the country. Based on the assessment of safety, quality and business sustainability, the BEL is given to clients, designers, consultants and construction companies that are good enough to lead the Singaporean construction market.

Moreover, the Twin Peaks Condominium built by Hyundai E&C has won the Construction Excellence Award Merit in the category of commercial and mixed development buildings. The CEA is based on the assessment of construction quality, compliance with schedule, accident rate, productivity and eco friendliness.

안전경영 총력, '사고 없는 일터' 만든다

9일, 상반기 경영진 안전리더십 교육

우리 회사가 무재해 건설 현장 실현을 위해 안전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9일 계동 본사에서 전 임원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경영진 안전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 회사 정수현 사장을 비롯해 본사에 재직 중인 경영진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외부 강사의 강연을 듣고 경영진들이 심폐소생술(CPR)을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리더십 교육은 경영진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5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정수현 사장은 총평에서 "심폐소생술도 배웠지만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



우리 회사 정수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있다.

한 것은 인명"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더욱 안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참석

한 임원들에게 특별히 주문했다. 이어 정 사장은 "올해 안전경영 목표인 '중대 재해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를 위해 올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안전관리 마일리지 제도'는 현장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안전관리 마일리지 제도의 주요 내용은 ▶체크리스트 작성, 부적합 보고서 발행 등 점검 활동 ▶신규, 정기 및 특별 안전 교육 활동 ▶앗차사고 사례를 등록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제안하는 정보 활동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 밖에도 우리 회사는 모바일HSE와 현장관리시스템 등 IT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의 위험요소를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름사 소식

기아차, 첫 브랜드 체험관 '비트(BEAT) 360' 외관 공개

기아자동차가 복합 브랜드 체험관인 'BEAT 360'의 외관을 지난달 31일 최초로 공개했다.



'BEAT 360'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브랜드 경험 가치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 '공감'과 '참여' '소통'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기아차 브랜드 감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상징적 거점이다. 기아자동차는 브랜드 속성을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BEAT 360'의 다양한 오감 체험 요소 및 트렌드한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객들의 평범한 일상에 '색다른 즐거움과 새로운 삶의 '도전적 영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국내영업본부 사옥 1층에 570평 규모로 운영될 'BEAT 360'은 접근이 용이한 도심 속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 트렌드 중심지인 서울 강남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자녀 초청 행사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정의 달' 5월 행사로 지난달 27일 임직원 자녀를 초청해 '주니어 데이(Junior Day)'를 시



행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및 자녀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초청 행사는 회사에 대한 임직원 가족들의 친밀도를 높이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임직원들의 애사심과 사기를 진작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임직원 자녀들은 전문 가이드의 안내로 창덕궁 고궁문화탐방을 하고 구내식당, 라운지, 옥상정원 등 계동 사옥을 견학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가족 초청 사생대회' '가족 초청 연말파티' 등 다양한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장·부서 소식

플랜트사업본부, 한마음 단합대회 진행

플랜트사업본부 2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본사와 서울사무소 전 임직원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단합대회'를 가졌다. 임직원들은 네 시간에 걸친 산행 후 식사를 함께하며 화합을 도모하고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플랜트사업본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다 함께 모여 즐거운 식사자리를 나누니 유대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는 것 같다"며 "올해 남은 하반기에도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마음 단합대회는 현대차그룹의 핵심가치 중 '소통과 협력' 실천의 일환으로 전사 차원에서 매년 1회 진행하고 있다.

Safety leadership program for the management held

Our company is expediting efforts for safety management to assure that all our construction sites perform projects without accidents or injuries.

Our company offered a training program designed to promote safety leadership among the management in the

head office, Seoul, on June 9. During the course, attended by CEO Jung Soohyun and about 80 management members working at the headquarters, an outside instructor delivered a lecture on how to react to emergencies, and the participants performed CPR.

The half-yearly safety leadership program has been conducted since 2015 to increase the safety consciousness of the management and prevent possible accidents that may occur at construction sites.

In his speech, CEO Jung stressed that

life is of utmost importance as learnt in CPR, encouraging the management to pay a continuous attention to safety-related issues, so that our construction sites can be more cautious about safety. CEO Jung also asked the participants to do their best to achieve zero accidents.

협력사 해외 현장 견학 및 분과별 간담회 시행

우리 회사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3박5일간 'H Leaders 해외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7개 우수 협력사 대표들은 인도네시아 상그릴라 레이디스,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윈 매립공사 현장 등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해외 현장 총 5곳을 방문해 현지 건설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건설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등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 협

력사 해외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우리 회사가 견학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 우리 회사는 계동 본사에서 지난달 16일부터 50개 구매 협력사와 104개 외주 협력사 등 총 154개 협력사가 참석해 H Leaders 분과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분과별로 나눠 일곱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협력사 대표들이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윈 매립공사 현장을 견학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 주거서비스 대상' 설계부문 최우수상 수상

우리 회사가 '2017 대한민국 주거서비스 대상'에서 설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리 회사는 힐스테이트 설계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주거서비스 대상'은 알찬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건

설사들을 발굴·전파하기 위해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협회 등이 후원해 제정한 상이다.

한편 우리 회사는 2015년부터 해마다 새로운 힐스테이트 스타일을 개발해 '교육·안전·편의'(2015년), '환경·건강·관리'(2016년), '침단·힐링·공유'(2017년) 등의 콘셉트로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7월 분양

우리 회사가 7월 중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송도 6·8공구) R1블록에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는 지하 4층~지상 49층 9개동, 전용면적 84㎡의 총 2784가구 대규모 단지다. 송도국제도시 최초로 전 가구에 테라스(일반테라스 2층~49층, 광복테라스 1~3층 별개동) 설계가 도입돼 차별화된 외관과 각 세대만의 특별한 전망을 느낄 수 있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가 준공되면 기존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레이 크 송도 1·2차'와 함께 이 일대에 8000여 가구에 달하는 힐스테이트 타운이 조성돼 브랜드 프리미엄이 기대된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조감도.

다. 또한 2020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역'의 역세권 단지로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남동측으로 약 26만㎡ 규모의 근린공원과 달빛축제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공원 조망도 가능하다. 홍보관은 연수구 송도동 30-3 센트로드에 운영 중이며, 모델하우스는 연수구 하모니로 177번길 17에 개관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032-881-1000

'워터프런트 마리나 사업' 추진 양해각서 체결

우리 회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계동 본사에서 워터프런트 전문기업(㈜케이아이피엠(CKIPM Marine Group)과 '워터프런트 마리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우리 회사 투자개발사업부장 장건식 상무, (주)케이아이피엠 강석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향후 마리나를 포함한 워터프런트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사업 추진까지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업무협력 내용은 향후 워터프런트 개발에 대한 협력구도와 업무협력 체계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제반 사항 합의 등이다. (주)케이아이피엠은 국내 주요 마리나 및 워터프런트 프로젝트를 설계·시공·개발하고 있

는 스페인계 워터프런트 전문기업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워터프런트 전문기업과의 양해각서 체결로 단기적으로는 마산·송도 등의 마리나 사업공공 개발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태안·서산 부지의 마리나 개발을 통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HOTO NEWS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장, 발주처와 월드컵 경기 공동 응원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크루즈 정유공장의 서울사무소 직원 9명과 가족, 발주처 및 베네수엘라 대사관 직원 총 28명이 4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을 찾아 베네수엘라 U-20 월드컵 8강전을 함께 관람했다.

이날 공동 응원은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준공과 발주처와의 우호적 관계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를 관람한 후 식사를 함께하며 친목을 다졌다.



Summer is the perfect time for a scenic road trip

June 10

With temperatures rising over 28 degrees Celsius (82 degrees Fahrenheit) on a regular basis, we are at the beginning of summer. So why take an air-conditioned road trip?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handpicked three of the best driving courses around Gyeonggi to explore.

Sihwa Seawall, Ansan The Sihwa Seawall, which connects Oido with Daebudo, is the best drive in Ansan, Gyeonggi. Along the road, on the right side is the sea while on the left is Sihwa Lake. Also along the road is the Sihwa Narae Tidal Power Park & Service area. The fact that it's built in the middle of the ocean is an attraction in itself,



1 Moon Tower located along the Sihwa Seawall road. 2 The Sihwa Seawall road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beautiful roads in the country. 3 Local highway no. 98 runs through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4 The Road of Freedom, Paju, is perfect for family outings.

but the world's biggest tidal power station, Sihwa Lake Tidal Power Station and the Sihwa Narae Tidal Power Culture Pavilion, standing adjacent, are all interesting places to visit. The 75 meter (246 foot) high Moon Tower is Daebudo's new landmark. The seawall is connected to Bangameori Park in Daebudo. Here, one can enjoy local specialties such as clams in the many restaurants.

and ordered that the forest area be protected. Today, nearly 900 types of vegetation can be found in the area, and it's also home to the endangered Korean woodpecker. Highway No. 98 is the driving course of Pocheon. It's a beautiful road inside a forest, with tall trees growing all along the curvy road. There are numerous places to stop and eat, as well. Idonggalbi, marinated grilled beef ribs, is a dish for which Pocheon is famous.

in downtown and riding along the Han River and Imjin River, one can reach the Civilian Control Zone within an hour. Nearby Haengju Fortress, Paju Book City and Heyri Art Valley are all tourist attractions fit for family outings. The Mount Ohdu Unification Observatory, located along the way, is a must-see. This is where the North Korean guard post is only two kilometers away. On the observatory, North Koreans can be seen going about their daily lives. For food, try various tofu dishes made from Paju's local specialty jangdan soybean and broiled eels.

Korea National Arboretum, Pocheon The vast primeval forest that is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is designated as a UNESCO Biosphere Reserve. King Sejo, the 7th king of the Joseon era, chose his burial grounds

Road of Freedom, Paju The Road of Freedom in Paju connects the northern end of Gayang Bridge to the Freedom Bridge in Imjingak. Starting off

By KOREA JOONGANG DAILY



G-Dragon's album tops charts worldwide



June 10

G-Dragon's new solo album has conquered Apple's iTunes album charts in 39 markets upon its release, his agency said. "Kwon Ji Yong," the fourth solo album released by the singer-rapper of boy band Big Bang, has stormed the chart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rgentina, France and Hong Kong, according to YG Entertainment. Other countries include Indonesia, Malaysia, Mexico, Norway, Singapore and Spain. The main track "Untitled" has also conquered all eight major Korean music streaming charts as well.

Kwon Ji-yong is G-Dragon's real

name. As the title suggests, the album has a strong autobiographical aspect to it, with lyrics focused on G-Dragon's personal character and growing pains as he enters his 30s. The music video for "Untitled" has racked up 4.1 million views on YouTube within 15 hours of its release.

Debuting as a Big Bang member in 2006, G-Dragon made his solo debut in 2009 with "Heartbreaker." Following the release of the new album, the singer is to begin a concert tour of 19 cities around the world in Seoul on June 10.

By KOREA JOONGANG DAILY

Group News

Hyundai Motor Reveals Environmental and Intelligent Roadmap



vehicles at the event, Hyundai Motor reinforced its commitment to develop alternative-fuel powertrains and intelligent safety features across its entire commercial vehicle range.

At the Mega Fair, Hyundai Motor revealed its vision for pioneering eco-friendly commercial vehicle technology with a new strategic roadmap. A key goal is to engineer environmentally-focused buses and heavy-goods vehicles, while positioning Hyundai Motor as a leader in safety technology within the commercial vehicle field.

Hyundai Motor demonstrated its vision for future commercial vehicle technologies at the inaugural 'Hyundai Truck & Bus Mega Fair' on May 25-28 in Korea. With a full line-up of current and upcoming commercial

Kia introduces the Stonic, an eye-catching and confident compact crossover



Kia's new B-segment crossover will be named 'Stonic'. An eye-catching and confident compact crossover with true European design flair, the Stonic is inspired by the form and function of larger Kia SUVs. The name 'Stonic'

combines 'Speedy' and 'Tonic'. Thus, 'Stonic' suggests that the vehicle is agile and offers something new and fresh in the compact SUV segment.

The Stonic's interior places technology and ergonomics at its heart, with smart packaging maximising space for all occupants, and a 'floating' HMI (human-machine interface) seamlessly blending smartphone access with the car's many functions.

On sale in the second half of 2017, the Stonic will be the most customizable Kia ever, inside and out.

10 minute Korean Lessons

Basic



What to say after finishing a meal.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Situational context

Yeong-min invited Michael his housewarming party, so Michael visited his house. Michael wants to express his thanks to Yeong-min for treating him to such delicious food. At this point, he can say,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Today's dialogue

마이클 영민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Yeong-min ssi! masikke jal meogeosseumnida.
 영민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masikke deusyeottani dahaengineyo.
 Michael Yeong-min! I enjoyed the meal.
 (Thank you for the meal.)
 Yeong-min I'm glad to hear you enjoyed it.

One more expression

Before you have a meal, Koreans usually say "잘 먹겠습니다." (I will eat well.) When you want to compliment a really delicious dish, then you can say "음식 맛이기가 막히네요." (The food is seriously delicious.)

Intermediate



How to explain that you are getting used to the new flavors and eating well.
 한국 음식이 입에 잘 맞아요

Situational context

Michael is talking on the phone with his Korean friend back at home. His Korean friend is wondering whether Michael is adjusting to Korean food or not. Michael wants to tell his friend that Korean food suits his taste. At that point, he can say, "한국 음식이 입에 잘 맞아요."

Today's dialogue

민수 한국 음식이 먹을 만해요?
 Hanguk eumsigi meogeul manhaeyo?
 마이클 네, 한국 음식이 입에 잘 맞아요.
 ne, Hanguk eumsigi ibe jal majayo.
 Min-su Is Korean food worth eating?
 Michael Yes, Korean food suits my taste.

One more expression

'잘 맞다' can be used when the size or length is appropriate, you can say "반지가 손가락에 잘 맞아요." (The ring fits my finger.) or "구두가 발에 잘 맞아요." (The shoes fit my feet well.)

Please scan the QR code for more Korean language learning resources.
 Source: 세종 누리 학당(Nuri-King Sejong Institute) www.sejonghakdang.org





⑦ 1970년대 국내 프로젝트(II)
미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다

본격적으로 항만건설 기술을 축적한 부산항 공사

창립 70주년을 맞아 현대건설의 역사를 바로 알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에서 글로벌 톱 건설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눈부신 발자취를 <사보신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1호 원전,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현대건설이 최초로 도전한 국내 건설의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전원개발계획이 시행되던 1967년 무렵이었다. 정부는 당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전원개발계획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정식 사업으로 포함시키고,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 1968년 4월 부산시 가장 근방인 고리 일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부지로 확정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점차 가시권으로 들어오는데 1970년 7월 한국전력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사와 고리 1호기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기본설계, 1차 계통의 주기기 설치와 함께 공사 전반에 걸친 시공 및 공정관리를 전담하는 턴키 베이스의 계약이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의 시발점이 될 중차대한 사업인 고리 1호기의 건설을 외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국내 업계에 관련 기술 확보가 전혀 이뤄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국내 건설사들은 웨스팅하우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단순 시공을 수행하는 형태로 고리 1호기 건설에 참여했으며, 현대건설을 포함한 단 3개사만이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내·외자를 통틀어 총 1560억7300만원이 투입된 고리 1호기 건설에서 현대건설에 맡겨진 공사는 1차 계통의 단순 시공에 대한 63억 3000만원 규모가 전부였다. 원자력발전소 경험은 갖고 있지 못했지만 이전까지 다수의 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해 국내 최고의 실적을 쌓아온 현대건설로서는 다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고리 1호기 건설 참여의 가장 큰 의의가 원전 시공기술 국산화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

력을 기울였다.

1971년 3월에 착공한 고리 1호기 건설 공사는 당초 예정된 60개월의 공기를 훨씬 넘겨 91개월 만인 1978년 7월에 완공됐다.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현대건설은 거의 전 분야, 전 공정에 걸쳐 외국 기술진의 통제와 감독 아래 공사를 수행해야 했으며, 원전 기술의 높은 장벽 앞에서 갖은 좌절과 서러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 1호기 건설은 현대건설에 원전 시공기술 축적의 소중한 경험을 제공했다. 최대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 건설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엄격한 절차들이

준설 공사 등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가운데 5부두 공사는 부산항 종합개발 1단계 사업의 핵심으로, 200t급 해상 크레인 등 대형 해상장비가 투입된 대공사였다. 현대건설은 1단계 개발공사가 끝나자마자 2단계 공사를 맡았다. 이 사업은 6부두 축조공사로 컨테이너 부두 축조 및 부두 개수를 골자로 한 것이었다. 컨테이너 부두의 완공으로 5만t급 컨테이너 선박 2척이 603m의 암벽에 동시 접안할 수 있어 연간 약 20만 개의 컨테이너 하역 능력을 갖게 되었다.

주요 공사의 매립 물량을 보면 제5부두 공사 560만㎡, 미군 대체시설 18만 6000㎡, 제6부두 공사 436만㎡, 컨테이

⑦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1970s (II)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was one of the most unexplored areas in the Korean construction market that Hyundai E&C targeted for the first time among domestic builders.

Although the construction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Unit 1 was considered as a significant starting point toward the country's energy independence, the project had no choice but to totally rely on foreign construction technology. That's because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t that time had no information on nuclear energy-related technology.

Against the backdrop, Hyundai E&C was responsible only for building the primary system valued at about 6.3 billion won, out of the Kori Unit 1 project into which a total of around 156.0 billion won in foreign and domestic capital were funneled.

The Kori Unit 1 project began in March 1971 and was completed in July 1978. It took 91 months to finish, 31 months later than scheduled. Throughout the project, Hyundai E&C conducted all the processe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technical

team from a US-based nuclear power company.

Nevertheless, while carrying out the project, the builder could gain invaluable experience in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laying the technical foundation concerning the nuclear reactor system, a core par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Kori Unit 1, the compan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creasing its technological independence.

In early and mid-1970s, Hyundai E&C jumped into achieving technology regarding port construction. The builder was awarded an order to perform the first stage of the Busan Port Development in 1974, and it successfully built Pier 5, 7 and 8,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and Coast Passenger Terminal, reconstructed Pier 1 and 2 and dredged 7.03 million cubic meters of land.

As soon as the first stage of the development was completed, Hyundai E&C became in charge of the second stage of the development program encompassing the construction of Pier 6 and Container Terminal and repair works.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second stage of the program enabled the Busan Port to handle some 39 million tons of cargo. The completion of the third stage, which continued until 1990, increased the cargo handling capacity of the port to about 57 million tons, three times more than that in 1974.

원전 시공 국산화의 토대 '고리 1호기'에서 '부산항 종합개발 1단계 공사'까지 미래 성장의 탄탄한 기초를 쌓다

해할 수 있게 됐고, 원자력발전의 핵심 부문인 원자로 계통에 대한 기술적 기반을 축적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고리 1호기 건설이 완료된 후에도 현대건설은 고리 2호기, 고리 3-4호기, 한빛 11-2호기 등의 국내 원전 건설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빠른 속도로 공사 영역을 넓히고, 기술자립도를 높여나갔다.

독보적인 항만 기술로 탄생한 부산항

1970년대 전반 및 중반기에 본격적인 항만 건설의 기술축적 단계에 돌입한 현대건설은 1974년 부산항 종합개발 1단계 사업 수주에 성공한다. 현대건설은 5·7·8부두 및 국제여객부두와 연안여객부두 신축 공사, 1·2부두 개축 공사 및 703만㎡의

너 부두 진입도로 64만㎡로 실로 엄청난 물량이었다. 2단계 공사의 완공으로 화물처리 능력이 3990만t으로 늘어났으며, 1990년까지 계속된 3단계 공사의 완공으로 다시 5770만t으로 증가하여 1974년 대비 세배의 화물처리 능력이 증가하게 됐다.

그 밖에도 카페리 전용부두인 부산국제여객부두는 1975년 12월 착공해 1978년 5월에 준공했다. 이 사업에는 약 56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고, 연 25만 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이 공사로 1만t급 카페리호 1척과 3000t급 선박 1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 30만 명의 여객수송과 연 6만 개의 소형 컨테이너 하역 능력을 갖추게 됐다.



고리 1호기

경영진과 직원 간의 의사소통 및 경영 혁신을 이끌어갈 직원 대표 기구, 차세대 리더보드 24기가 활동을 시작했다. 3월 선발 이후 정기적인 회의 등으로 조직을 갖춘 이들은 지난 5월 창립기념일을 맞아 '인도네시아 사랑의 헌옷 보내기'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렀다. 젊은 패기로 현대건설에 신선한 감각을 불어넣을 차세대 리더보드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글=김보나, 사진=이슬기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5
2017/06/14/Wednesday

24기 차세대 리더보드 인터뷰 **경영진과 직원을 잇는 가교(架橋), 바로 우리!**

1990년 '주니어보드'로 시작해 2016년 새로운 명칭으로 다시 태어난 '차세대 리더보드'는 현대건설의 직원 대표기구다. 올해로 24기를 맞은 차세대 리더보드는 지난 3월 20명을 새롭게 선발했다. 23기와 달라진 것은 대리-과장 직급 비율을 높여 활동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성 직원들의 비율을 높이고, 외국인 직원도 처음으로 선발했다. 리더들은 앞으로 사내 소통문화 조성 및 경영 혁신 선도에 힘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내 행사, 캠페인 활동 등에 참여하고 역량 강화 교육도 받는다.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는 차세대 리더보드 의장과 간사, 그룹장 등 네 명의 이야기에는 포부가 넘쳤다.

Q 차세대 리더보드에 지원한 계기와 선발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성지예 과장 올해로 현대건설 근무 10년차가 됐습니다. 연차가 쌓이니 회사 생활 하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현장에서 경력을 다지는 데 주력했는데, 이제는 회사 경영 방향에도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참여하고 싶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리더분들과 어색했는데, 이제 낯익고 많이 친해졌어요.

문창선 과장 저도 간사님과 비슷해요.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현안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차세대 리더보드는 작은 목소리라도 낼 수 있는 소통 창구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열심히 활동해 보고 싶습니다.

김충기 과장 저는 회사 생활 10년 중에 해외근무 기간만 6년 반 정도 됩니다. EPC 공사만 했는데 발주처나 다른 건설사 등은 운영 사업이나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소수 인원으로 많은 이윤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역시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죠. 선진 회사 연구나 경영진과의 소통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 걸 보고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경영진 및 직원들과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는 부푼 꿈을 꾸고 있습니다(웃음).

까를로스 대리 해외 현장에는 외국인 직원들이 많지만 본사에는 많지 않죠. 세계적으로 활약할 현대건설에 새로운 목소리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또 연구개발본부보다 보니 용인에서 근무해 본사 직원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다른 사업본부의 다양한 직원들과 협업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Q 석 달 남짓이지만 직접 활동한 소감이 어떠한가요? 창립 70주년 기념 인도네시아 사랑의 헌옷 보내기 행사도 마쳤는데요.

성지예 과장 창립 70주년이라 7000점을 목표로 했는데 첫날 1500점이 들어왔어요. '목표 달성은 어렵겠구나' 살짝 걱정했는데 다음날부터 참여가 이어져 목표를 초과달성했죠. 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다 보니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문창선 과장 좀 더 미리 공지하고 홍보했으면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었



1 지난 3월 선발된 20명의 차세대 리더보드 직원 중 10명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2 창립 70주년 기념 인도네시아 사랑의 헌옷 보내기 행사에서 기증품을 정리하는 차세대 리더보드 직원들.

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활동에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아요.

김충기 과장 기획은 총무실, 진행과 발송은 구매실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이 많아요. 문창선 과장님을 비롯해 리더분들이 시간도 많이 할애해 주셨고요.

까를로스 대리 사실 이런 행사는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진행해 보면 손이 참 많이 가잖아요. 예산과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는데 모두들 열심히 참여하시더라고요. 저도 앞으로의 활동에 동기 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활동 일정과 가장 기대되는 활동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김충기 과장 우선 7월에는 글로벌 전략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고, 하반기에는 기업문화 캠페인과 드림빌딩 프로젝트, 타운홀 미팅 형식의 경영진 간담

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성지예 과장 글로벌 전략 포럼은 우리 회사의 경영 전략을 회의하는 자리입니다. 그중에 20분의 발표시간이 차세대 리더보드에게 주어졌어요. 이번 포럼의 테마는 변화와 생존인데요, 그룹별로 변화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창선 과장 저는 저희 그룹에서 진행할 드림빌딩 프로젝트가 기대돼요. 우리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직원들의 애사심을 고취하고 업무에 활기를 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를로스 대리 하반기에 있을 경영진 타운홀 미팅도 기대됩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활동해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어요.

성지예 과장 우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그룹사에서도 차세대 리더보드와 같은



직원 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룹 차원에서 다 함께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 그 또한 뜻 깊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차세대 리더보드 활동으로 얻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문창선 과장 우리 회사의 고착화된 제도나 개선 사항에 대해 많은 이와 의견을 나누고 싶어요. 예를 들면 사업 리스크를 줄이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요. 또한 그룹사 시너지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방안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가 각광받고 있었어요. 자율주행도로 건설에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거죠. 물론 어려운 주제고 소통이 쉽지는 않겠지만, 집단 지성을 이용하면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까를로스 대리 저도 공감해요. 해외의 EPC 업체들은 대부분 자신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포트폴리오가 거의 비슷해요.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한다는 건 글로벌 시장

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건설 회사는 아마 우리 회사뿐일 거예요.

문창선 과장 회사 밖으로 눈을 돌려 보면 '현대건설'의 이미지 고취에도 관심이 가요. 외부 공간에 벽화나 사진, 조형물 등을 무료로 설치해 '현대건설이 만든 공간은 편안하고 즐겁다'라는 이미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성지예 과장 멋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문창선 과장님과 비슷한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싶어요. 대다수가 느끼는 개선 사항이나 불만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풀어내고 싶고요. 차세대 리더보드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김충기 과장 맞아요. 막상 차세대 리더보드로 활동한다고 생각하니 제가 회사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부터 회사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또 다양한 소속의 직원들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굳은일을 먼저 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전력주주영업실 김충기 과장(의장)

'공감 능력이 뛰어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건축기술지원실 성지예 과장(간사)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프라환경건축기전실 문창선 과장(그룹장)

'다국적기업의 환경을 만드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에너지환경연구개발실 까를로스 대리(그룹장)





현장탐방 싱가포르 워터타운 복합개발 공사(SGAWA)

싱가포르 정부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신도시 풍골(Punggol). 바다로 연결되는 인공 호수와 풍부한 녹지를 갖춘 이곳에 싱가포르 동북부 지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연면적 12만6000㎡에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로, 지하 4층~지상 2층에는 쇼핑몰이 지하 5층(콘도 주차장)과 지상 2~14층에는 콘도(주거용)인 건물 11개 동을 짓는 프로젝트다. 현장은 편의시설이 부족한 풍골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글=박현희

싱가포르 동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

Waterway Point And Watertown



저층부(지하 4층~지상 2층에 위치한) Waterway Point 쇼핑몰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싱가포르 워터타운 복합개발 공사는 고층부(지상 2~14층)의 콘도보다 쇼핑몰을 먼저 준공해 지난 1월 오픈했다.

풍골 뉴타운에 들어서는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풍골(Punggol)은 중심지에 비해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었다. 예로부터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가끔 사육이나 양돈, 어류 양식에 종사했다. 이곳에 개발 불이 인 것은 싱가포르 정부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풍골을 뉴타운으로 지정하면서부터다. 이후 지상 경전철(LRT)과 같은 교통수단이 도입됐고 도시는 현대화했다. 그러나 유입된 인원에 비해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

다. '싱가포르 워터타운 복합개발 공사(Waterway Point And Watertown)'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싱가포르 워터타운 복합개발 공사는 연면적 12만6000㎡(대지면적 3만㎡)에 저층부에는 쇼핑몰 Waterway Point(지하 4층~지상 2층), 고층부에는 콘도 Watertown(지상 2~14층, 주거용)이 있는 건물 11개 동과 기타 시설물을 짓는 프로젝트다. 싱가포르 동북부에 생기는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이자 대형 복합 쇼핑몰도 우리 회사는 2012년 8월 30일 이 공사를 턴키로 수주(지

분율 100%)했다. 현장은 바다로 이어지는 수로(Waterway Waterway)를 정면에 두고 있다. 특히 버스 인터체인지가 인접해 있고, MRT(지하철)-LRT역사 및 수변 공원(Punggol Waterway Park)과 바로 연결돼 교통 입지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주처는 싱가포르의 FCL(Fraser Centre Point Limited)과 파 이스트 오가니제이션(Far East Organization), 일본의 세키스이 하우스(Sekisui House)로 이뤄진 합작회사로, 발주처 중 PM 역할을 맡고 있는 FCL은 싱가포르에서 20여 개의 복합 쇼핑몰을 운영

하고 있는 쇼핑몰 전문 디벨로퍼다. 현장 관계자는 "발주처가 20여 년 전 선택시 티를 공사한 현대건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무척 반가워했다"고 귀띔했다.

고급 건축 부문에서 선도적 입지 다져

발주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패스트 트랙은 파일-흙막이 공사와 본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방식. 우리 회사는 '절대 공기를 확보하고자 파일 공사를(타사 시공)가 완료되기 전인 2013년 6월 현장

을 인도받아 골조 공사와 마감 공사를 실시했다. 현장의 가장 큰 과제는 '해수면보다 낮은 지하층을 어떻게 공사하느냐'였다. 지하층은 20m 아래까지 깊게 파여 있는 데다 수변 공원(바다로 연결되는 인공 호수)과 MRT 터널 및 LRT 트랙(현장과 6m 거리)이 인접해 있어 공사에 특별한 주의를 요했다. 우리 회사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RPZ(Railway Protection Zone)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중에 대한 작업 절차, 장비 제원, 위험 평가서를 싱가포르 건설청(BCA)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했다. 지하철 역사 및 노반 시설 곳에서는 자동계측 센서를 부착했다. 센서는 드릴 등 큰 공사 장비가 사용될 때마다 그 진동을 측정했고, 떨

해수면보다 낮은 깊이 20m 지하층... '안전사고 제로'와 '적기 준공' 위해 현장 직원들은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림이 15mm 이상 되면 현장 구조 컨설턴트·발주처·현대건설·관공서 등 유관기관에 즉시 알렸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지하층 일부 흙막이 파일에 약 1.2m 두께의 추가 합력을 세웠다. 또 본 구조물을 가설 버팀대로 사용하면서 터파기와 골조공사를 진행하는 'Semi Top-Down 공법'을 적용했다. 이 공법을 통해 장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가설 구조물의 비용을 절감하고, 가설 구조물 설치 및 해체 시간을 단축하는 등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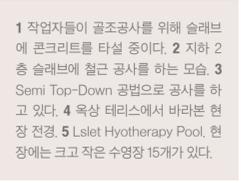
또한 우리 회사는 싱가포르 워터타운 복합개발 공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Phased Top'을 적용했다. 이는 저층부 쇼핑몰을 먼저 준공해 오픈하고, 고층부 콘도 공사를 이후에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쇼핑몰은 2013년 6월 착공해 2015년 12월 18일 완공했다. 쇼핑몰에는 대형 백화점과 아이맥스 영화관을 비롯해 극

+

장, 유택원 같은 교육시설, 150개의 일반 상점이 들어섰으며, 2016년 1월 18일 오픈해 상업 중이다. 지상 주거동(콘도)은 올 7월 준공에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현장은 임시사용승인(Temporary Occupation Permit)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발주처에 개발 세대(총 992세대)에 대한 인신인계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이러한 노력은 후속 수주로 이어졌다. 시공 능력이 높고 평가한 발주처에서 2억1146만 달러 규모의 최고급 오피스빌딩 신축공사(싱가포르 세실 스트리트 오피스)를 또다시 맡긴 것. 현장 직원들은 "후속 수주의 성공으로 싱가포르 고급 건축 부문에서 다시 한번 선도적 입지를 다지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성공적인 공사 수행으로 싱가포르 전역에 현대건설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싱가포르 워터타운 복합개발 공사' 현장. 마지막으로 집중력을 발휘해 싱가포르 복합개발의 대표 프로젝트로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리기를 기원한다.

+



1 작업자들이 골조공사를 위해 슬래브에 콘크리트를 타설 중이다. 2 지하 2층 슬래브에 철근 공사를 하는 모습. 3 Semi Top-Down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4 옥상 테라스에서 바라본 현장 전경. 5 Lslet Hydrotherapy Pool. 현장에는 크고 작은 수영장 15개가 있다.

+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5
2017/06/14/wednesday

INTERVIEW

한국인과 외국인 직원이 함께 만들어 낸 Harmony

현장 생활에서 무엇보다 힘이 되는 것은 직원들 간의 끈끈한 팀워크다. 다른 해외 현장보다 외국인 직원의 비율이 높았던 '소통과 협력'으로 화모니를 만들어 냈다는 '싱가포르 워터타운 복합개발 공사'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 속으로.

Q 자기소개 바랍니다.

박지홍 현장소장(이하 박 소장) 저는 24년간의 직장 생활 동안 13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사원-대리 시절에는 중동에서, 최근엔 싱가포르 현장에서 주로 근무했죠. 우리 현장에는 2013년 5월 공무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현재는 현장소장으로 주거동 준공과 쇼핑몰의 하자 및 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우 부장대우(이하 고 부대) 2015년 초 쇼핑몰 마감공사와 주거동의 골조공사가 막 시작할 때쯤 부임했습니다. 현재 전기-설비 파트장으로 MEP(Mechanical Electrical Plumbing) 공사의 설계, 시공 관리, 쇼핑몰의 사후 관리를 맡고 있죠.

이승한 차장(이하 이 차장) 2012년 10월 부임해 줄곧 공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장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2012년 4월 수주 입찰 단계에 참여한 인연으로 현장까지 부임하게 됐습니다. 김준우 과장(이하 김 과장) 저는 국내 현장과 본사에서 주로 근무했습니다. 해외는 싱가포르 럭키타운 현장이 처음이었고, 싱가포르 복합개발 공사 현장에는 2016년 1월 부임해 관리 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Tan Kim Leong, Jeff 사원(이하 Jeff 사원) I am from Singapore and my name is Jeff Tan, currently working on the Watertown Project since the project commencement. I am working as Senior Quantity Surveyor in the P&E Department, basically handling the roles of coordination and correspondences with Client, Consultants and Subcontractors on any aspects of costings, claims and contractual matters.

Q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프로젝트라고 하던데요.

이차장 Waterway Point 쇼핑몰이 오픈하기 전까지 싱가포르 동북쪽에는 대형 복합 쇼핑몰이 없었어. 이 때문에 풍골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확충을 약속했던 싱가포르 국회의원들에게도 큰 관심사였죠. 쇼핑몰이 오픈할 때는 싱가포르 부총리와 여러 관공서 대표들이 방문할 정도였습니다. 박 소장 발주처, 싱가포르 정부 여당과

구두 합의한 쇼핑몰 오픈 일정(2017년 1월)을 맞추기 위해 애썼던 것이 기억나네요. 발주처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했거든요. 이를 만회하려고 한국인-외국인 직원 모두가 3개월간 합심해 돌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쇼핑몰 준공 이후 발주처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식사까지 대접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그간의 힘들던 날들 사라지는 기분이었죠(웃음).

Q 다른 해외 현장에 비해 외국인 직원의 비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팀워크 강화를 위해 무엇을 노력했나요?

김 과장 한국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의 비율이 1대 3 정도였어요. 소장님께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시며 현장을 이끄셨죠. 돌관 공사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두 달에 한 번은 한국인-외국인 직원이 하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마련됐어요. 박 소장 초반에는 현지인과 3국인 직원의 업무 역량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책임, 안전 관리와 같은 주요 업무를 맡기고 믿어준 결과 공사 중 후반부터는 파일 공사, 간축 마감공사 등을 적절 관리할 정도가 됐습니다. 전기-설비 파트의 외국인 직원들은 복잡 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공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 한국인 직원에 준하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차장 팀 분위기가 좋으려면 우선 안전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현장은 'Safety Mind Renovation'이라는 내부 목표표를 갖고 ▶전 직원의 안전 의연화 ▶책임 담당제 ▶위

협 작업요소 사전 협의 등 한국인과 외국인 직원 모두가 안전 담당자가 되어 현장을 관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무 파트의 외국인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Jeff 사원 Having the opportunity to work in a big project team, and good support amongst an experienced pool of colleagues and staff is a good memory for me.

Q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각고의 노력을

김 과장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한 직원들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현대건설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차장 마지막까지 안전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발주처 및 입주자들이 최고로 만족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현대건설이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새겨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 부대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중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사에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 소장 착공부터 준공을 앞둔 오늘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현장 직원들,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한달음에 와준 본사 직원들까지 지면을 빌려 모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다할 테니 끝까지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워터타운 복합개발 공사 현장 파이팅, 현대건설 파이팅!



Tan Kim Leong, Jeff 사원, 이승한 차장, 김준우 과장, 박지홍 현장소장, 고석우 부장대우(왼쪽부터).

New landmark in northeastern Singapore

First large shopping mall in Punggol New Town

Punggol in the northeastern part of Singapore was underdeveloped compared to the center of the city state. The land development boom began in this area when the Singaporean government designated Punggol as a new town in an aim to ease the housing shortage. With many people coming in, the area was short of facilities, which is a reason why the Waterway Point and Watertown project has been drawing a huge attention in Singapore.

A solid footing in the construction of luxurious buildings

The biggest challenge of the construction site was how to work on the basement floor lower than sea level. The basement floor, 20 meters deep, is located close to the waterfront park and only 6 meters away from the MRT tunnel and the LRT track, which required a special attention, to prevent possible accidents, our company submitted construction procedures, equipment data and risk evaluations concerning all the disciplines performed within the railway protection zone to the Bui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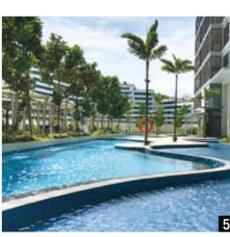
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BCA) of Singapore, and conducted related construction works with the approval of the BCA. In line with this, automatic measuring sensors were installed inside the MRT station and on the surrounding roadbed.

For this project, our company adopted the semi top-down construction method where basement and ground construction works are performed at the same time following the completion of underground foundation work. The construction method enabled our company to minimize the movement of construction equipment, reduce costs of building temporary structures and cut back on the time of the installation and dismantling of temporary structures.

On top of this, we took a phased top-down approach commonly used for mixed development projects in Singapore. According to the approach, the condominium located on higher floors is open to the public

after the shopping mall opens first. The construction of the shopping mall Waterway Point began in June 2013 and was in December 2015, featuring a department store, a cinema including an IMAX theater, educational facilities including a kindergarten and other 150 stores, it opened in January 2016. The condominium is slated to be in mid-July.

In addition, winning another order worth about 211 million dollars to build a top-notch office building on Cecil Street is credited to our efforts and highly recognized construction capability.



+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에서 태어난 토머스 텔퍼드는 도로, 교량, 운하 건설 등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눈부신 업적을 세웠다. 그가 추앙받는 이유는 단지 작업의 다양성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건축물에 효율성과 경제성, 구조적 아름다움을 고루 담았고, 이때문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건설을 선보였다. 정리=김보나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5
2017/06/14/Wednesday



장경간 현수교의 본보기가 된 메나이 해협 현수교. ©Nifanion via Wikimedia, CC BY-SA 4.0

영국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토목공학자, 토머스 텔퍼드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은 기술자

1757년, 토머스 텔퍼드가 태어난 스코틀랜드 덤프리스 갤러웨이는 영국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태어난 해에 아버지를 여윈 텔퍼드는 13세에 석공으로 수련을 받기 시작했다. 23세가 되던 1780년에 에든버러로 간 그는 뉴타운에서 석공으로 일하며 에든버러의 건축물을 공부하고 독서에 열중했다. 1782년에는 런던으로 무대를 옮겨 서머셋 하우스 박물관 일을 하거나 몇몇 관청 건축물의 감독을 맡았다.

1784년, 포츠머스에서 부두 토목공사를 처음 경험한 텔퍼드는 3년 후 슈롭셔의 토지측량사로 임명됐다. 점점 더 많은 토목 업무에 투입되면서 그는 '몬트퍼드 브리지'를 시작으로 슈롭셔 내의 40여 개 교량의 설계와 재건을 담당하게 됐다. 1790년대부터 영국어업협회의 고문을 맡아 항구와 부두 건축에 참여하면서 공학자이자 건축가, 설계자로서 능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효율성, 경제성, 간결한 디자인을 갖춘 '구조예술' 선보여

텔퍼드는 당시 처음 개발됐던 '로만 시멘트'를 공사에 활용하는 등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혁신에 대한 그의 의

지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교량 건설이었다. 텔퍼드가 설계한 최초의 철교인 '빌드위스 브리지'는 철교의 구조적 형태에 대한 통념을 깨는 것이었다. 그는 세계 최초의 주철교였던 '아이언 브리지'의 비효율적인 구조와 자재 사용을 비판하며 효율성과 경제성, 우아함을 갖춘 철교를 선보였다. 그 이후 건설된 보나 브리지를 비롯한 다른 주철 아치 교량들도 마찬가지다. 당시의 문학가들은 텔퍼드의 다리를 보고 "지금까지 신이나 인간이 만든 것들 중 가장 멋진 작품"이라는 찬사를 늘어놓기까지 했다. 텔퍼드는 철이라는 건축 재료를 철저히 연구했고, 철을 공학적으로 다루는 능력을 점차 발전시켜나갔다. 슈롭셔에서의 활약으로 호평을 받

은 텔퍼드는 1793년 엘즈미어 운하회사에 초빙돼 '엘즈미어 운하'의 설계와 감독을 맡게 된다. 슈롭셔부터 리버풀 항까지의 산업 수로를 건설하는 이 작업에서도 텔퍼드는 혁신적인 발상을 선보였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항로인 '폰트치실트 수도교'를 건설한 것이다. 이 수도교는 38m 높이의 돌기둥에 13m가 넘는 19개의 아치, 307m 길이의 주철 상판으로 이루어졌다. 견고하고 과감한 토목 기술이 실현된 걸작이자 기념비적인 주철 건축물이다. 이로써 텔퍼드는 '구조예술가'라는 명성을 얻었다. 폰트치실트 수도교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다양한 토목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텔퍼드는 국내 경기를 부양하고 자

국민의 외국 이민을 막기 위해 항만과 내륙 교통을 광범위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1803년 칼레도니아 운하 건설 위원회가 설립됐다. '칼레도니아 운하'는 척박한 스코틀랜드 북부 지역(하일랜드)에 산재한 호수들을 동서로 잇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도전이었다. 텔퍼드가 하일랜드에서 수행한 작업 중 단연 최대 규모였다. 수많은 교량과 부두, 교회 건설 및 도로 확장 등을 포함한 칼레도니아 운하 공사는 텔퍼드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이어졌다. 하일랜드뿐 아니라 스코틀랜드 곳곳에도 여러 주요 교량을 건설했다. 그는 교각 내부 공간을 비우거나 아치와 기둥, 천장 사이의 세모난 공간인 '스팬드럴'을 활용해 건축물의 하중을 줄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이후 다른 토목작업에서도 널리 쓰였다. 그중 하나인 '딘 브리지'는 현재에도 에든버러 시내 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조예술을 실현하고자 한 텔퍼드의 야심은 장경간 교량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자신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쏟아부은 웨일스의 '메나이 해협 현수교'가 바로 그 작품이다. 이 다리는 당시 약 180m의 세계 최장 경간 및 300m의 세계 최장 교각이라는 기록을 세운 영국 토목사의 역작이다. 메나이 다리 완공 이후 세계의 거의 모든 장경간 다리는 현수교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다.

텔퍼드는 영국의 공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외국 프로젝트의 자문을 맡아 스웨덴 남부를 가로지르는 '에타 운하' 건설에 참여했다. 1821년에는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의 외국인 회원으로도 선출됐다. 명성이 높아지자 캐나다 및 인도의 공학자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현대 도로 건설의 기준을 세운 '도로의 거인'

텔퍼드의 또 다른 별명은 '도로의 거인'이다.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도로 건설의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런던부터 슈롭셔를 가로질러 연결하는 '홀리헤드 로드'는 그의 도로 중 가장

토머스 텔퍼드 Thomas Telford



1757년에 태어나 1834년에 사망한 스코틀랜드의 토목공학자이자 건축가, 석공이다. 영국 곳곳에 도로와 교량, 운하, 항구, 터널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했다. 특히 잉글랜드에서 웨일스까지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의 거인'으로 불렸다. 당시의 최장 경간 교각인 메나이 현수교의 공학자이기도 하다. 1820년에 영국 초대 토목공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훌륭한 작품이다. 도로와 더불어 제작한 통행요금소와 거리 팻말, 부채꼴 모양의 톨게이트 등은 아직까지 보존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

60세 즈음의 텔퍼드는 영국 공학계를 이끄는 인물이었다. 1820~1830년대에는 대다수 토목공학 프로젝트에 자문해 리버풀과 맨체스터의 철도 건설에도 참여했다. 1818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토목공학회가 창설되면서 텔퍼드는 1820년에 초대 회장을 맡았다. 사망 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다. 토목공학자 중 그와 같은 영예를 누린 이는 텔퍼드가 처음이었다.

텔퍼드가 남긴 자산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비롯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단지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했다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텔퍼드는 '구조예술'이라는 새로운 미학의 개념을 제시했다. 당시에는 값비싼 공업 생산품이었던 고가의 철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대규모의 구조물을 생산해야 했다. 텔퍼드는 산만하고 무거운 장식을 딱지딱지 바르지 않으면서 미학적 가치까지 구현해 냈다.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최선의 가치로 삼아 많은 토목 건축물을 단시간에 만들어낸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공공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텔퍼드가 추구한 구조예술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여기에 있다.

다리, 도로, 항만 건설 등 영국 전역에 텔퍼드의 손길 닿아... 토목공학의 새로운 지평 열다



1 석조 기둥과 주철 상판으로 지어진 폰트치실트 수도교. 현재는 레저용 선박이 다니는 수로로 사용된다. 2 슈롭셔에는 이 지역에 도로와 운하, 철도를 건설한 텔퍼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도시가 있다. 텔퍼드 광장에 세워진 그의 동상. ©Row17 via Wikimedia, CC BY-SA 2.0 3 런던 시민들의 휴식처인 템스 강가의 세인트 캐서린 도크도 텔퍼드의 작품이다. ©ChrisO via Wikimedia, CC BY-SA 3.0

스타PD 나영석의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 비지상파 시청률 1위에 등극하며 손조롭게 출발했다. 출연진 중에는 브라운관에서 좀처럼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소설가 김영하가 있다. 그가 지난 5월 7년간 상실을 목도하면 쓴 소설집 『오직 두 사람』을 펴냈다. 소설가로, TV 출연자로 마주하게 된 김영하작가와와의 인터뷰. 글=엄지예 <채널에스> 기자/사진=이관형



Profile 1968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영하 작가는 '영상 시대의 이야기꾼'으로 불리는 소설가다. 1995년 『거울에 대한 명상』으로 등단해 이듬해 첫 장편소설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로 제1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 『호출』, 『사진관 살인사건』, 『오빠가 돌아왔다』, 『살인자의 기억법』 등이 있다.

소설가 김영하 7년간 목도한 상실을 이야기하다

지독한 정신은 우리를 숨막히게 한다

Q 7년 만입니다. 단편집은.

시간이 꽤 걸렸죠? 7년 동안 쓴 작품을 묶은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비교적 최근에 쓴 소설은 기억이 나지만 오래된 작품은 좀 이상해요. 장편은 어떤 이야기가 꼭 진행되다가 끝나면서 출간된단 말이에요. 여행에 시작과 끝이 있듯이, 어떤 결말이 모여서 해단식을 하는데 단편은 그런 게 없어요. 오래된 작품을 다시 읽으면 과거에 내가 보낸 편지 같기도 하고, 좀 달라요.

Q 낯선 느낌이 드나요?

좀 그렇죠. '내가 쓴 문장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 문장도 있고. 소설가는 당시엔 자신이 될, 왜 쓰는지 잘 몰라요. 쓴 다음에는 돌이킬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단편을 묶어 책을 내는 데 의의가 있다면, 다른 작품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아, 내가 7년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왔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 작품들은 일관되게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옥수수나 나'의 소설가

는 창조성을 상실하고, '아이를 찾습니다'의 부모는 아이를, '오직 두 사람'의 주인공은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일곱 단편을 쓴 게 2010년부터 2017년인데, 내가 계속 상실의 문제를 고민했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어요. '뭘 잃어버렸나?' 하면 그걸 잘 모르겠어요. 많은 걸 잃어버렸겠죠.

Q 작가로서 가장 행복할 때는 "장편을 쓰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단편을 쓸 때는 어떤가요?

'단편으로 써야지' 하고 시작하는 작품은 별로 없어요. 보통 장편으로 시도해요. '오직 두 사람'도 그래요. 장편으로 써보려고 계획한 소설인데, 쓰다 보면 장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단편은 쓰는 입장에서 너무 빨리 끝난다는 느낌이에요. 이 세계에 오래 머무르고 싶는데 너무 빨리 돌아오는 느낌이랄까. 몰입의 경험이 참 좋는데, 단편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Q 마감을 어긴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마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전에 대

학에서 학생들이 가르칠 때, 수업을 세 번 빠지면 무조건 F학점을 줬어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도 받았어요. 사인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소설을 잘 쓰는 건 가르쳐줄 수 없지만 마감 지키는 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제때 원고를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알게 될 텐데, 천재라면 F를 받아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감이라도 잘 지켜야죠. 사회에 나온 학생들이 그래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었다"라고. 먹고살려면 제때 넘겨야 하거든요. 글 안 써진다고 잠수 타고, 연락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학생



소설가 김영하의 최신작 『오직 두 사람』과 그의 책 『살인자의 기억법』, 『말하다』.

들 중에 숙제를 완성하지 않고 넘기려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시기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래 고친다고 해도 나아지지 않아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원고를 보내요. 내 능력의 70, 80%를 써야 한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Q 완벽주의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얼마 전에 안자이 미즈마루의 에세이를 읽었는데 "대충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도 비슷해요. 물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겠지만, 소설은 스포츠가 아니에요. 예컨대 피겨선수라고 하면 명확히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트리플 악셀이라든지. 스포츠는 점수가 나오지만 소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독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소설을 쓸 때, 어떤 위험 같은 게 있어요. 지독한 정신은 우리를 숨막히게 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받아들이고 내보내야 해요. 저는 한 사람이 어떤 때에 도달할 수 있는 한계, 경지가 있기 때문에 밤을 새운다고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또 세상에는 훌륭한 편집자가 많아요. 제가 놓친 걸 잘 봐주죠. 작가는 '이 이야기가 말이 되나' 그런 것에 집중해야 해요. 소설은 좀 비어 있어야 해요.

소설은 어떻게 보면 황혼의 장르

Q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에 출연하신다고요.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것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나영석 PD가 하는 프로그램인지 몰랐어요. 유시민 작가, 황교익 칼럼니스트, 정제승 교수가 출연한다길래 재밌겠다 싶었어요. <1박2일>의 지식인 버전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까나리 액젓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돼요 (웃음).

Q 예전에 남성 집단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출연진이 모두 중년 남자예요. 어쩌면 '꼰대' '아재' 소리를 듣기 너무 좋은 조합일지 몰라요.

그렇죠. 어쨌든 저도 한국에서 아저씨가 됐던 말이에요. 최근 들어 페미니즘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요. 문학계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남성 작가가 읽고 있을 텐데요. 21세기 한국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페미니즘에 맞춰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대세라는 걸 떠나 페미니즘은 옳아요. 옳은 흐름이에요. 인권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엔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잖아요. 이걸 함의를 한 거예요. 함의했으면 닦치고 받아들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닦치고 받아들이는 정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닦치고 받아들인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주저하는 부분도 있고, 이걸 좀 과하지 않냐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바보일 수 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한도 안에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거든요. 저는 밤거리를 돌아다닐 때 걱정을 안 해요. 누구한테 잔소리를 듣는 일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살아온 적이 없는 거에



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모른다고 가정하고 시작해요. 개그우먼 김숙씨가 윤정수씨에게 말했잖아요. "남자가 좀 조심해야지." 40, 50대 남성들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조심함이 아닐까 싶어요. 조심하게 삼가는 태도, 비단 우스갯소리만은 아니에요.

Q 최근 몇 년간 "현실이 더 소설 같아서 소설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어요. 작가에게도 지난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모두가 큰 상처를 입었죠.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 몰라요. 괜찮다고 말하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힘든 일을 겪었어요. 몇 년 동안 애도가 금지당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추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Q 소설이 좀 읽힐 거라는 기대가 있나요?

조금은 기대해요.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고통 받은 자를 읽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견뎌내고 견뎌는지를 보면서, 인간의 내면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타인에게 공감하며 연대해야만 우리 힘도 강해져요.

Q 팩트만 읽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현실과 소설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 더 재밌냐'가 아니죠. 존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정보를 자꾸 찾는 건 불안감 때문이에요. 사람이 불안하면 소설을 읽을 수 없어요. 내 가족이 수술하면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잖아요. 열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대기실에서 소설을 볼 수 있나요? YTN 뉴스만 봐요. 불안한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게 소설이에요. 소설은 어떻게 보면 황혼의 장르예요. 어떤 일이 지나가고 돌아보는 장르죠. 소설에는 정보가 없어요.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인물들이 윤리적인 딜레마를 겪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수준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죠. 많은 현대인이 게걸스럽게 정보를 수집하지만 커다란 만족감 같은 건 얻지 못해요.

Q 김영하의 소설을 한 편도 읽지 않은 독자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요.

『오직 두 사람』. 언제나 가장 최근에 쓴 작품이죠(웃음).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설도 자기 시대와 가까운 때 가장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 소설을 읽으려면 어렵잖아요. 배경도 시대도 다르니까요. 이왕이면 최근 한국을 배경으로 쓴 소설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갈수록 더 잘 쓰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남자'와 '미용'은 더 이상 어색한 조합이 아니다. 스킨과 로션은 기본, 자외선 차단이나 간단한 색조 화장을 하는 남성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탈모 예방을 위한 헤어 관리에도 열을 올린다. 이 모든 것이 생소하고 무심한 '아재'라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 보자. 글=황민영 뷰티에디터·글로시데이즈 이사

남자도 자기 관리 한다

여름 남자의 뷰티 노하우

여자들은 여름이 오면 계절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컬러를 사고, 좀 더 강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유분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남자들은 화장할 일도 없고, 평생 자외선을 막으려고 노력한 적 없어도 잘만 살아왔고, 개기름이 조금 끼면 세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앞으로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남자의 피부는 여자보다 두껍다. 그러니까 매일 화장품을 바르면서 관리하는 아내나 여자친구보다 자신의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건 아직 피부 속의 주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일 확률이 높다. 이제는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세수를 하고 스킨, 로션을 바른다고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여름은 여러모로 남자를 힘들게 하는 계절이다. 남자들의 가장 큰 외모 고민 중 하나인 탈모 역시 여름에 심해질 수 있다. 강한 자외선과 두피 열, 땀과 피지 분비는 탈모의 큰 적이기 때문이다. 셔츠를 흥건히 적시는 '겨뎀'과 땀 냄새는 또 어떤가. 그러나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그만큼 '센스 있는' 남자로 거듭날 수 있다. 그 세 가지 방법을 전한다.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지금까지 선크림, 선블록 같은 자외선 차단제 한 번 바르지 않아도 '괜찮은' 외모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꾸준히 발라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았을 것이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 건조, 탄력 저하 등을 일으키는 일등공신이다. '노안'이라거나, 전날 음주나 야근도 안 하고 잠도 푹 잤는데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가장 빠르게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피부 관리이고, 이때 필요한 게 자외선 차단제이다. 땀과 유분이 샘솟는 여름에 크림을 하나 더 바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귀찮을뿐더러 잘못 바르면 끈적적이고 얼굴이 허옇게 뜨기도 하니까.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최대한 유분이 적고, 백탁 현상은 심하지 않으며, 부드럽게 잘 발리는 제품을 고르는 게 안전하다. 여기에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헛갈리는 SPF와 PA는 평소 생활 패턴에 따라 고르면 된다. 햇빛을 많이 받는 야외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면 무조

건 SPF50, PA+++라고 된 제품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면 SPF30, PA++ 정도도 괜찮다. 굳이 차이를 두는 이유는 숫자가 높고 +가 많을수록 저녁에 세안할 때 꼼꼼히 잘 씻어야 하는 귀찮음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사용 시 바르는 양이 중요하다. 차단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양을 짜서 발라야 하는데, 이만큼 바르면 그 어떤 자외선 차단제라 해도 얼굴이 하얗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짜서 고르게 바르고 귀나 목 뒤쪽

까지 꼼꼼히 바르자. 또한 한 번에 많이 바르는 것보다 외출 30분 전에 바르고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 주는 것이 좋다. **추천제품** 1 유세린의 선 플루이드 안티에이지 SPF50+/PA+++ 로션 타입으로 유분기가 적고 부드럽게 발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에 서툰 남자도 무난하게 쓸 수 있다. 2 키엘의 페이스 퓨얼 UV 가드 SPF50/PA+++. 흡수가 빠르고 발랐을 때 얼굴이 번들거리지 않아 남자들이 바르기에 좋다.



탈모를 피하고 싶었어



탈모를 예방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과연 하루에 어느 정도의 머리 카락이 빠져야 탈모라고 할 수 있는가. 평균적으로 하루 60~100개의 머리 카락이 빠지는 것은 탈모가 아니다. 그 이상 빠질 때가 문제다. 하지만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을 어찌 셀 수 있던 말인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발이 전보다 가늘어지거나 잘 끊어지는 경우, 두피를 눌렀을 때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해진 경우, 두피에 피지가 많아지고 비듬 같은 각질이 부쩍 눈에 띌 때 탈모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여름에는 체온이 올라 땀과 유분이 많아지고 습한데다 자외선

도 강렬하기 때문에 탈모와 관련된 고민이 가중된다. 탈모를 예방하려면 먼저 모발에 스타일링 제품을 바르는 것과 상관없이 외출 후에는 반드시 샴푸를 하는 게 좋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외출 시 두피와 모발에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그날 씻어내지 않으면 두피의 모공을 막거나 자극해 탈모를 촉진시킬 수 있다. 샴푸를 할 때에는 손톱으로 두피를 박박 긁지 말고 손가락 끝을 이용해 마사지한다는 생각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는 게 좋다. 머리카락에 붙은 노폐물은 두피를 마사지하고 행구는 동안 자연스럽게 씻겨 나갈 테니 굳이 열심히 비비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머리를 감을 때에는 미온수를 사용하는 게 좋다. 거품도 잘 나

고 샴푸가 잘 분해돼 두피에 남을 염려도 줄일 수 있다. 한 번에 쓰는 샴푸의 양도 중요한데, 손바닥에 털었을 때 100원 짜리 동전 크기만큼 퍼지는 정도면 충분하다. 점심을 먹을 때쯤 두피를 만졌을 때 끈적이는



타입이 아니라면 아침에는 샴푸를 쓰지 않고 물로만 행귀도 된다. 그리고 피지 못할 사정으로 씻지 않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면 적어도 베개에 수건을 깔아주는 게 좋다. 베갯잇을 매일 빨게 하라 하면 된다. 스트레스를 제외한 탈모의 주요 원인으로는 두피 건조와 혈액 순환을 들 수 있다. 햇볕 아래 오래 노출되면 머리카락이 바스락거릴 정도로 건조해지는데, 이 경우 모발로 전달돼야 할 영양분이 손실되기 쉽다. 이때 필요한 게 모발과 두피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는 헤어 팩이다. 샴푸를 한 다음 바르고 5분 정도 지난 후에 씻어내야 하는 팩의 가장 큰 단점은 사용이 귀찮다는 것. 그래서 추

천할 만한 방법은 샴푸 후 팩을 바르고 세안과 면도, 보디 클렌징을 하는 것이다. 이 정도 하면 3~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다음 한 번에 다 씻어내면 된다. 그리고 모발은 두피로 이어지는 혈액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탈모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평소에도 뒷목 마사지를 꾸준히 하고, 샴푸를 할 때에도 두피를 꼭꼭 누르는 마사지는 필수다. **추천제품** 3 로레알파리의 폴리리스트 마스크. 샴푸 후 바르고 1~2분 후 씻어내면 되는 간편한 헤어 팩이다. 모근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모발을 힘 있고 풍성하게 한다. 4 듀크레이 엑스트라 도우 샴푸. 건조하고 민감해진 두피에 사용하기 좋다. 샴푸 후 모발이 너무 뻣뻣해지는 게 고민인 사람에게 추천한다.

향기를 풍기고 싶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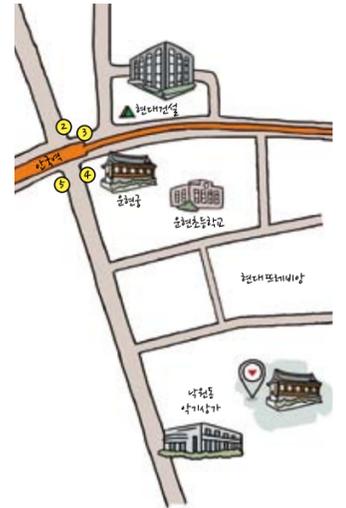
여름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고민은 바로 냄새다. 체온이 오르면 체온 유지를 위해 흘리는 게 땀인데, 모근 주위와 피부의 각질층에 기생하는 세균에 의해 땀이 분해되면 퀴퀴한 냄새가 난다. 이러한 냄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인 겨드랑이의 통풍에 신경을 써야 한다. 유난히 땀이 많다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땀 억제제(의약품)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이미 땀이 많이 난 상태라면 물티슈나 물에 적신 티슈로 닦아내고 마른 티슈로 닦은 다음 완전히 마를 때까지 팔을 들고 있는 게 좋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게 바로 데오도란트다. 땀 냄새를 없애는 방법으로 향수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일단 향수로 가려지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매년 여름 겨드랑이 냄새가 고민된다면 올해에는 겨드랑이 털을 깎는 것

도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앞서 말한 것처럼 냄새는 땀으로부터 오는데, 겨드랑이의 체모는 체온을 올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데다 통풍도 방해하기 때문에 체모만으로도 냄새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남자가 사용하기 좋은 데오도란트는 스프레이 타입이다. 스틱이나 롤온 타입은 체모에 묻어서 깔끔하게 사용하기 어렵고, 땀이 많은 편이라면 액체로 된 제품은 바르고 마르기까지 팔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게 번거롭다. 뿌리는 즉시

보송보송해지는 스프레이 타입은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스로 분사되고 파우더를 함유한 제품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처럼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추천제품** 5 이솝의 데오도란트. 땀을 억제하는 알루미늄 대신 냄새를 억제하는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제품. 6 니베아 맨의 쿨 킥 스프레이. 뿌리는 즉시 피부 온도를 낮추고 피부 표면을 보송보송하게 마무리해준다.





만화가게

주소 서울 중로구 수표로 28길 33-7
영업시간 11:00~23:00(연중무휴)
문의 02-741-1339

만화도 보고, 라면도 먹고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면 만화가게로 가자!

점심시간만이라도 업무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잠깐이라도 누워서 책을 보고 싶다면? '만화가게'가 답이다! 만화가게는 '영클 비디오 타운' '1920 경양식' '낙원장' 등 서울 익선동의 오래된 공간을 새로운 모습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회사 '익선다다'의 새로운 솜씨로 지난 5월 5일 오픈했다.

신발을 벗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신발을 한구석에 벗어두고 책꽂이에 가득 꽂힌 만화책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일본 만화부터 소설과 결합한 형태의 만화인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 등 다양했다. 익선다다 디자인팀 최은준씨는 "만화가게는 만화를 하나의 예술 문화로서 대중에게 소개하는 '만화 큐레이팅'을 표

방한다"며 "이곳이 어른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만화가게의 이용요금은 1시간에 5000원, 초과 요금은 10분당 500원이다. 만화방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재미인 '주전부리'도 판매한다. 라면, 즉석밥, 추로스, 쥐포 같은 간단한 먹거리부터 아메리카노, 라테, 밀크티, 탄산음료, 맥주 등 마실거리도 다양하다. '어른들을 위한

1,3 만화가게 내외부 전경. 2 이곳은 만화를 하나의 예술 문화로서 대중에게 소개한다. 4 다양한 종류의 봉지 라면과 병맥주가 준비돼 있다.

휴식 공간'이라는 소개처럼 오비, 클라우드, 호가든, 하이네켄, 바이엔슈테판, 블루문 등 다양한 병맥주가 준비돼 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방문객에게는 '런치:라면 스페셜'이 적용돼 7000원(1시간)에 만화+라면+즉석밥이 제공된다. 현대건설 사원증을 제시하면 기간 한정으로 2000원을 할인해 준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을 위한
special event
현대건설 사원증을 제시하면
런치:라면 스페셜
2000원 할인
2017년 6월 15일~7월 15일

문화 책갈피

주목받는 6월 개봉 한국 영화의 공통점? 바로 영화 제목이 '두 글자'라는 것! 임팩트 강한 제목처럼 영화가 주는 재미와 감동도 크다고 하니, 이달엔 영화관에서 살아도 좋겠다.

두 글자로 말해요, 6월 개봉 한국영화 베스트



악녀
개봉 6월 8일 감독 정병길
출연 김옥빈, 신하균, 김서영
러닝타임 123분

제70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돼 영화 팬들의 관심을 끌었던 영화다. <악녀>는 살인병기로 걸리진 최정에 킬러 속도가 그녀를 둘러싼 비밀과 음모를 깨닫고 복수에 나서는 과정을 그린다. 한국 영화계에서는 볼 수 없는 여성 원톱 주연의 액션 영화라는 사실만으로도 볼 이유가 충분하다. 현재 흥행 상승세라고 하니 예매는 필수다.



용순
개봉 6월 8일 감독 신준
출연 이수경, 최덕문, 김동영
러닝타임 104분

블록버스터 대전 속 따뜻한 영화의 개봉이다. <용순>은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달리기와 첫사랑을 함께 시작한 18세 소녀 용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는 첫사랑뿐 아니라 친구 사이의 우정, 현실적인 이야기도 담는다. 학창 시절 열병을 앓았던, 뜨겁게 사춘기를 겪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하다. 상영하는 영화관이 많지 않으니 미리 알아보고 가자.



박열
개봉 6월 28일 감독 이준익
출연 이제훈, 최희서, 김인우
러닝타임 129분

<박열>은 도쿄대지진 이후 6000명에 이르는 조선인 학살을 은폐하려는 일본제국에 맞서 싸운 박열과 그의 연인 가네코 후미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박열은 그동안 사회주의자이자 북한에 남북해 활동했다는 사실 탓에 평가절하돼 온 인물이다. 지난해 <동주>를 히트시킨 이준익 감독이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남길지 자못 기대된다.



옥자
개봉 6월 29일 감독 봉준호
출연 안서현, 틸다 스윈턴, 제이크 질런홀
러닝타임 120분

봉준호 감독과 온라인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가 처음 손을 잡고 만든 영화다. <옥자>는 미국 대기업에 의해 유전자 조작이 된 거대 돼지 옥자와 강원도 산골 소녀 미자의 이야기다. 미자 역은 아역 연기자 안서현이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됐다. 틸다 스윈턴, 제이크 질런홀, 폴 다노 등 해외 스타급 배우들과 변희봉, 윤제문 등이 출연한다.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Description 유형
Please describe the picture below.



This picture looks like it was taken in the downtown of a city. There is a man with a blue shirt playing electric guitar on the street. He is wearing a black vest and a grey hat. I think he is trying to make money by entertaining people. There are some other people, walking along the sidewalk.

Opinion Question 유형

Some say that people have changed their eating habits from those in the past. Do you agree or disagree? Giv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I think that some people eat only twice in a day on purpose, so I agree with the above statement. People usually skip breakfast nowadays. It is quite an important meal of the day, but people seem to be too busy and occupied with something in the morning, such as going to the gym and so on. Also, some prefer to spend more time in bed and wish to get more sleep instead of waking up early and having their breakfast. Eating twice a day, people are willing to spend more money on healthy food. The purpose of eating is to prepare you for work, and to be more efficient at work or school, so it is better to eat delightful food and avoid a fatty meal.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야수파를 이끌었던 프랑스 화가, 모리스 드 블라맹크(1876~1958)의 국내 첫 단독 전시가 열린다. 예술의 전당은 오는 8월 20일까지 작가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원화 총 70여 점을 공개한다.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5
2017/06/14/Wednesday

1 앙귀비 꽃(Bouquet de coquelicots), 1936-37, oil on canvas, 55.5×38cm. 2 눈 덮인 마을(Village sous la neige), 1935-36, oil on canvas, 54.5×65cm. 3 툴리에르(Tourillière) 아뜰리에서 앉아 있는 블라맹크, 1948-50년경. 4 브르타뉴 어선의 귀환(Retour de pêche, Bretagne), 1947, oil on canvas, 60×73cm. 5 빨간 지붕(Les Toits rouges), 1908, oil on canvas, 79×92cm. 6 눈 덮인 마을(Village sous la neige), 1930-35, oil on canvas, 65.5×81.5cm. 7 눈길(La route sous la neige), 1931, oil on canvas, 81×100.5cm



1



2

마티스와 함께 야수파를 이끈 모던 아트의 거장

모리스 드 블라맹크 展

마티스와 함께 야수파를 이끈 프랑스 화가 모리스 드 블라맹크. 야수파는 유럽 현대미술에서 마네, 모네, 르누아르, 고갱, 세잔 등 인상파에 이어 새로운 길을 모색한 대표적 미술 사조다. 인상파가 빛과 대기의 변화에 따른 작가만의 시선을 그렸다면 야수파는 작가의 개성이 부각된 강렬한 색채와 거친 필치가 특징이다.

야수파는 피카소로 대표되는 입체파가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유럽 현대미술 발전에 공헌했지만, 인상파와 달리 국내에는 지금껏 별로 소개되지 않았다. 블라맹크의 주요 작품 70여 점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야수파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왜 유희를 원작으로 감상해야 하는지를 증명한다. 쏟아질 듯한 질감과 선명한 색감으로 이뤄진 실험적인 화면 구성은 관객에게 신선한 미적 충격을 준다. 프랑스 시골 마을을 그린 풍경화들을 보면 마치 거리에 유화물감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듯한 느낌도 든다. 그는 캔버스 위에 물감을 직접 짜서 칠하며 선명한 색채와 두툽한 질감이 주는 실험적인 화면 구성을 전개했다. 블라맹크는 독창적인 표현력이 돋보이는 강렬하고 역동적인 작품들을 통해 야수파를 이끌어 나갔다.

이번 전시에서는 블라맹크의 작품을 미디어로 재현한 대형 미디어 영상 체험관도 마련됐다. 작품에 직접 들어간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블라맹크가 작품을 그리는 시선을 조명하는 미디어 연출도 함께 진행된다.



3



4



5



6



7

2017.6.3~8.20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02-580-1300 | www.sac.or.kr